

선종부흥·부인선원 면모 보여주는 자료

법진 스님 '중앙선원 안거방합록' 최초 공개

“중앙선원 <안거방합록(安居芳峯錄)>은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확립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던 청정 수좌들의 의지와 선종부흥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다.”

4월 7일 서울 정법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제1차 월례발표회에서 ‘선학원 중앙선원 <안거방합록>과 선종부흥’을 발표한 법진 스님은 1997년 발견된 <안거방합록>을 최초로 공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

<안거방합록>은 97년 선학원 중앙선원 3층 법당에서 발견된 2권의 책을 일컫는다. 1권에는 1934년 동안거부터 1942년 동안거까지, 2권에는 1942년 하안거부터 1967년 하안거까지의 안거 참여자와 소임자가 수록되어 있다.

<안거방합록>이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재가 여성 수행자의 명단이 출가수행승의 명단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진 스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권에 기록된 안거 참여 대중은 수좌 302명, 재가여성 55명이며 2권에는 수좌 351명, 재가여성이 148명 동참했다. 하지만 부인선원의 안거는 1949년 동안거를 마지막으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한국전쟁 후에도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안거방합록> 기록 기간 중 참여 대중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34년 동안거와 35년 하안거, 동안거 기간인데 이때는 각각 선학원이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연구원으로 인가받은 해(1934년)와 제3차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

가 열린 해다. 이후 안거 동참자 수는 점차 감소되다가 평균 15명으로 유지된다.

법진 스님은 “3차 수좌대회에 참여했던 69명의 비구 가운데 14명이 중앙선원 안거에 참여했다는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 선학원은 전국 선원을 대표하는 중심이자 선종부흥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학원 중앙선원은 같은 기간 운영되었던 다른 선원에 비해 참여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근현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지

재가 여성 수행자 명단 포함 실천수행 지침도 담겨 있어

식들이 안거를 하고 각 지역 수좌들을 결집하는 실질적인 행정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스님은 “<안거방합록>은 근현대 한국 불교계의 동향과 선종의 정체성과 중흥의 면모뿐만 아니라 실천수행의 지침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한편, 서재영 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논평에서 지적한 ‘결재 대중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당시 방부를 들었던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은 “중앙선원의 규모가 매우 작아 15명 정도가 생활하기에 적정했지만, 서울에 중무를 보러 온 스님들도 동참해 선방에는 늘 30-40명이 함께 수행했다”고 회고했다. **여수령 기자**



TIP 방합록이란?

방합록(芳峯錄)은 결재 기간 중 선원에서 안거하는 스님들의 안거 년도와 법호, 법명, 나이, 소속 교구본사, 소임 등을 적어 두는 기록을 말한다. 방합록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선원의 역사와 규모, 수행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하부 건물지 부도 등 조사 서산 보원사지 2차 발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4월 17일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서 개도제를 개최하고 2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발굴조사는 사역 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사찰의 범위와 구조, 역사적 변천과정을 밝히기 위해 2017년까지 진행된다.

2006년 진행된 1차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방형건물지가 확인됐으며, 보원사삼보(普願寺三寶)명 암기와, 용문龍紋암막새, 청동장병 등이 출토됐다.

이번 2차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 아래에 놓여진 하부 건물지와 부도, 탐비 주변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출토유물을 전시하고 발굴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전시관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다.

백용성 조사 입멸 67주기 맞아 금강경 3만권 무주상법보시

백용성조사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조실 불심 도련)는 4월 11일 용성조사 입멸 67주기 추모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에서 불심 도련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 스님의 업적을 가리기 위하여 조사께서 직접 금강경의 제목과 대의·대요·대개와 32분의 각분을 상세히 해설한 <상역과해 금강경> 3만권을 발간하겠다”며 “전국 1만여 곳의 사찰과 강원 등을 비롯해 국내·외에 무주상법보시로 배포하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이날 대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회 총정 석가산 스님과 광주 무각사 한주 원두 스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김원우 기자**

도갑사 대웅보전 상량식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4월 8일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과 김일태 영암군수, 국회의원 유선호 의원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우 스님은 “세월의 풍파 속에 당우가 낡고 기울어져 원형을 유지하게 어려워 신축불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불자들을 위한 여법한 신행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갑사는 최근 2년간 일주문 현판식과 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한데 이어 대웅보전 신축건립 및 천불조성 봉안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061)473-5112 **고영배 기자**

월정사 수재민 돕기 축구대회

스포츠클럽 주민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 하였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제3회 월정사 주지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선도회 전국 걷기명상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 진행

조계종 중앙선도회(회장 김의정)가 마련한 ‘전국수행터-꽃길 따라 걷기명상’의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걷기명상 행사는 4월 22일 마곡사를 시작으로 28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 공원, 29일 인천각 평화누리 공원, 5월 5일 평창 월정사에서 개최된다.

건전한 수행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걷기명상은 수경 스님(해계사 주지)이 증명법사를, 자비명상 지도로 유명한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사진)이 진행을 맡는다.

4월 29일 인천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오전 11시 희망법회를 봉행한 후 가족놀이, 공동체놀이, 빙그릇 운동으로 실천하는 점심공양,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만원. 참가는 마곡사(041-841-6221) 해운대 동백섬(051-853-2021) 인천각 평화누리공원(02-733-7277) 월정사(033-332-6664)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령 기자**

4월 29일 오전 9시 진부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축구대회는 월정사 스님들과 지역 종교인 또는 단체장과 시범경기에 이어 본격 경기가 진행된다. 이날 수재민들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참가자들이 수해성금을 기탁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대흥사 지역 어르신초청 잔치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가 서산대사 탄신 487주년을 기념하고 호국정신과 경노효친 전통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해남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대흥사는 4월 14일 문수·보현전 야외 공연장에서 서산대사 탄신 487주년을 맞아 해남을 비롯해 14개 읍·면 어르신 2000여명을 초청, 국악마당 잔치를 펼쳤다. 국악마당 놀이극과 단막 마당극, 각설이 국 등의 공연이 열렸으며 행사장측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 및 음료와 과일 등이 무료 제공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지역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짓기대회가 열렸다. **김원우 기자**

교육 진행 자원봉사자 모집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는 여성리더십교육과 행복가정지킴이 등의 교육 사업을 돕게 된다.(02)722-2101 **여수령 기자**

“전공도 살리고 봉사도 하고 ‘얼썩’”

금강대 학생 23명 농촌 명예교사로 선발

외국어·상담·부진학생 지도 등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성낙승) 재학생 23명이 농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07학년도 대학생 교육 도우미제’ 명예교사로 선발돼 4월 11일부터 소규모 8개 초·중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대학생 명예교사들은 4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22회(각 학기 11회씩)에 걸쳐 논산시 소재 초·중학교에 파견돼 맞춤식 지도를 펼치게 된다. 파견 학교는 연산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 노성중학교 등 여섯 곳이다.

특히 금강대 재학생 명예교사들은 통역

(통상통역)과 사회복지 등 자신의 전공을 살려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와 부진아 학습지도, 교과지도 및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정원(통상통역 일어전공 2학년) 학생은 “전공을 살려 학생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교육 도우미제는 도시·농촌 간의 교육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학업 및 특기·적성교육, 특별보충과정,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김원우 기자**

청각장애 학생들 트레킹 템플스테이

내소사, 전주선화학교 학생·교직원 초청

내소사에서 청각장애아들이 수학 중인 전주선화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트레킹템플스테이를 연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는 선화학교 학생 90명과 교사 30명을 포함 총 120명을 초청, 4월 27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변산반도의 풍경을 감상하고, 자연생태와 내소사의 유래에 대해 학습하는 직소폭포 트레킹을 실시한다. 또 수행자들의 전통 식사법인 발우공양과 연등 만들기, 내변산 직소폭포 트레킹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거동이 불편한 10여명

의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도와 염주계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소사는 그동안 내소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선화학교 학생들에게 낸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메시지와 선물도 전달할 계획이다.

진원 스님은 “트레킹템플스테이가 선화학교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제3대 원명 지종 방장 추대식

영축총림 제3대 원명 지종 방장 추대식을 봉행하오니 원로 대덕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4월 22일 (음 3월 6일) 오전 11시
-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영축총림 통도사 제3대 방장 추대위원회 위원장 산 옹 합장